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6. 0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**美 대통령, “총기소유 강력 규제” 필요성 역설**
 - 5.29 언론은 美 「바이든」 대통령과 민주당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△총기구입 신원조회 확대, △소총 구입 연령 상향(18→21세), △대용량 탄창 판매금지, △유령총 등록 규제를 추진중이라고 보도
 - * 한편, 「트럼프」 前대통령과 공화당은 자유로운 총기 소지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2조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
- **美 여성, 호신용 권총 이용 총기 난사범 사살**
 - 5.30 언론은 美 웨스트버지니아주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졸업파티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소총(AR-15)을 난사하는 총격범을 한 여성이 호신용 권총으로 사살해 사상자 발생을 막았다고 보도
 - * 총기소지 옹호 세력들은 同 여성을 총기 참사를 막은 영웅으로 칭송

아 · 태평양

- **인도법원, 카슈미르 독립운동 지도자 종신형 선고**
 - 5.26 인도 법원은 인도령 카슈미르의 독립을 이끌던 잠무·카슈미르 해방 전선(JKLF) 지도자 「야신 말리크」 (남, 56세)에게 테러 주도 및 테러 활동 자금 조달 등의 혐의로 종신형 선고
 - * 同人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, '80년대 후반 JKLF의 지도자가 된 후 독립운동 주도

○ 아프간 미니버스 겨냥 폭탄테러 발생 20여명 사상

- 5.26 언론은 아프간 북부 발크州의 州都 마자르-이-샤리프에서 미니버스 3대가 연쇄 폭발하여 1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으며, 희생자는 모두 이슬람 시아파 신도들로 확인됐다고 보도

* 사건 직후 ISIS가 배후를 자처했으며, 지난달 28일에도 同 지역에서 미니버스 두 대를 겨냥한 폭탄테러 자행

○ 유엔 인권대표, 중국 대상 대테러 정책 再검토 촉구

- 5.28 「바첼레트」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중국에 “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테러 정책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”며 대테러 정책 再검토를 촉구

* 유엔과 중국은 대테러·인권 등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암살 배후 시인

- 5.26 언론은 이스라엘이 최근 발생한 이란 혁명수비대(IRGC) 대령 피격사건(5.22)의 배후였음을 미국에 시인했으며,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(Quds)*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보도

* 혁명수비대 직속 특수부대로 정보수집·암살 등 다양한 특수전 과정을 거친 요원들로 구성

아프리카

○ 이집트, 시나이 북부 일대 대테러작전으로 테러리스트 10명 사살

- 5.29 이집트 軍 당국은 시나이 북부 지역 일대 대테러작전을 전개, 무장세력 은신처를 급습하여 테러리스트 1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하였으며 수류탄, TNT 등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압수하였다고 발표

* 同 지역은 지난 7일, 11일에 ISIS에 의한 공격으로 다수의 군인이 사망한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이집트 軍은 해당 지역에 대한 대테러작전을 강화

아프간, 카불 외교단지 차량자폭 테러

- '17.5.31, 오전 08:30경 아프간 수도 카불 외교단지내 독일대사관 앞에서 테러범이 폭발물을 탑재한 정화조 물탱크 트럭을 폭발시켜 본인 포함 90명 사망·461명 부상
 - * 폭발로 독일대사관 건물 전면부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,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한 他국가 공관, 관저, 차량 50여대 등 파손
- 전문가들은 금번 외교공관 테러 배후와 관련해,
 - 사건 초기에는 아프간 정부와 내전중인 탈레반이 '춘계 대공세'의 일환으로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했으나,
 - * 이후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배후를 공식 부인
 - 이후, △ 지난 한달간 카불 외교가 발생 자폭공격 2건과의 유사점* △ 최근 라마단 기간 동안 ISIS 동향 등을 근거로, 이번 테러도 同 테러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종 판단
 - * 5.3에도 ISIS는 美대사관 인근 나토군 차량 겨냥 자폭테러 자행(8명 사망·3명 부상)
- 한편, 아프간 당국과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'라마단 중 발생한 반인류적 테러'라고 규탄하며, ISIS-탈레반 연대 가능성에 따른 위협 고조에 촉각

< 이슬람 聖月 '라마단' >

- (개요) 이슬람 창시자 「무함마드」가 천사로부터 코란을 계시받은 것을 기리는 신성한 달로, 이 기간 동안 무슬림은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5번 기도 엄수
- (기간) 초승달을 기점으로 시작되며,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어 태양력보다 11~12일이 적기 때문에 매년 빨라지는데 전문가단이 초승달을 관측하여 라마단 시작 일자를 공표
- (테러리즘 관련성) ISIS·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라마단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을 악용해 테러를 순교로 포장하고 同 기간중 지하드(聖戰)를 실행하면 천국행이 약속된다고 공격을 자행할 것을 선전·선동
 - * 개인의 신앙적 수양을 다듬는 '큰 지하드'와 이슬람의 신앙을 전파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벌이는 이교도와의 무력 투쟁 방식의 '작은 지하드'로 구분